



Original Article

Development of a “Grandmothering Stress Index” for Korean Day-care Grandmothers

Kim, Moonjeong¹⁾ · Chung, Chae-Weon²⁾

1) Instruct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2)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 - 주간양육 할머니를 중심으로 -

김 문 정¹⁾ · 정 재 원²⁾

1)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임상강사
2)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Abstract

Purpose: The study was to develop an instrument to measure grandmothering stress for Korean day-care grandmothers and to test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instrument. **Method:** The items of the instrument were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secondary data. After content validity tests and a pilot test, 20 items were developed. In order to tes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cale, data were collected from 126 grandmothers. **Result:** After a factor analysis, five factors and 15 items were selected. These explained 67.2% of the total variance. The first domain was termed ‘Health problems’, and explained 18.1% of the total variance, and the second domain of ‘Possibility of role substitution’ explained 13.8%. The third and the fourth domains were ‘Relations with adult children’ and ‘Grandchildren's characteristics’ explaining 12.5% and 12.1%, respectively. The last domain explained 10.8% of the total variance with the theme ‘Restriction of social life’. After accomplishing the

reliability analysis, Cronbach's alpha coefficient was determined to be .75. **Conclusions:** This initial step in the development of a Grandmothering Stress Index is valuable to reflect the subject of Grandmothering stress in senior citizens in Korea. Future study should to refine the constitution of the instrument.

Key words : Parenting, Stress

서 론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육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양질의 보육시설 부족과 혈연중심 주의 사고 때문에 보육시설 이용이나 타인양육을 꺼리는 실정이다. 2003년 현재 0-5세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22.3% 이지만 0-2세 영아들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12.9%에 지나지 않는다(Pyo, 2005). 이는 보육서비스가 다양성과 질 면에서 수

투고일: 2008. 2. 13 1차심사완료일: 2008. 2. 28 최종심사완료일: 2008. 3. 5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Moonjeong Kim(Corresponding Author)

Instruct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28 Yongon-dong Jongno-gu, Seoul 110-799, Korea

Tel: 82-2-740-8462 Fax: 82-2-747-3948 C.P.: 82-11-9907-3558 E-mail: mjy7955@hanmail.net

요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아동이 어릴수록 개별적인 대리양육에 대한 선호가 높기 때문이다. 취업모의 자녀 양육 문제는 가족 또는 친인척의 대리 양육 현상을 낳게 되었는데 젊은 맞벌이 부부가 가장 선호하는 대리 양육자는 아동의 할머니이다(Lee & Kim, 1990).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할머니가 가장 이상적인 대리모의 자격을 갖추고 가장 훌륭한 대리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Yoo, 1999). 산업화와 근대화 이후에는 핵가족이 보편화되면서 자녀양육의 책임이 핵가족에게 국한되었지만 최근에는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와 부모의 사망, 사고, 질병, 실직, 별거, 이혼, 수감 등으로 인해 가족해체 상황이 발생하면서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맡아 양육하는 경우가 많아졌다(Nam, 1999). 손자녀 양육 형태는 자녀가족의 기능 정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녀가족의 해체로 손자녀 양육을 전담하게 된 전담양육자(custodial grandparent)와 기능적인 자녀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게 된 주간양육자(day care grandparent)이다.

할머니는 손자녀 양육을 통해 노년기의 소외감을 극복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며 자존감과 삶의 의지가 고양되는 등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기도 하지만(Burton, 1992; Jendrek, 1993; Kelley & Damato, 1995)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피로나 체력부족, 불안, 우울, 사회적 고립감, 만성질환의 악화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시간과 재정의 부족 때문에 자기간호에 소홀하게 되어 신체 허약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신체허약은 심리적인 스트레스(psychological distress)를 초래하게 된다(Haglund, 2000; Minkler & Fuller-Thomson, 1999; Waldrop & Weber, 2001).

일반적으로 조부모의 증가된 양육 스트레스는 조부모 자신 뿐만 아니라 손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Crnic & Greenberg, 1990) 조부모들이 아동을 학대하고 방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Minkler, 1995). 따라서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할머니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중재하고, 할머니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할머니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함에 있어서 도구 사용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존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들은(Abidin, 1995; Crnic & Greenberg, 1990; Kim & Kang, 1997; Kwon, 2000) 대부분 서양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들이어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현실과 할머니에게 민감한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를 대상으로 적용할 때 타당성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인 Abidin(1995)

의 PSI는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이지만 할머니에게도 적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받은 도구이다. PSI를 우리나라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적용한 문헌들 가운데 타당도를 검증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드물게 타당도 검사를 실시한 연구(Shin, 1997)의 요인분석 결과는 아동기질, 조손관계, 학습기대의 세 가지 요인으로 나타나 원도구와 다르게 묶인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할머니 세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노령을 고려할 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양육 스트레스의 특성을 문헌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할머니는 전통적으로 정서적, 모성적 역할유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와의 분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녀와의 관계에 따라 전체적인 삶의 만족에 큰 영향을 받는다. 즉 손자녀를 주간양육하는 할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내용을 보면 손자녀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정서적 고통이 차지하는 부분이 전담양육 할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Kim, 2007; Kwon, 2000). 그리고 근로 기회의 상실, 손자녀에 대한 지출의 증가, 자녀로부터 받는 수고비 등의 변인에 따라 재정상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Dowdell, 2004). 또한 손자녀 양육을 노년기의 생애주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식함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와 생활의 불연속성(Selzer, 1976), 손자녀 양육의 책임이 부모나 전담양육자처럼 절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역할포기가 가능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손자녀를 주간양육하는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부모역할 스트레스에 자녀와의 관계, 재정적 측면, 생활의 불연속성, 역할 포기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Abidin(1995)의 Parenting Stress Model을 근간으로 손자녀를 주간양육하는 우리나라 할머니에게 적용하기에 적합한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둔다. 개발된 도구는 앞으로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위험군을 찾아내고,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의 관련 요인을 찾고, 양육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중재하기 위한 중재 개발과 그 효과를 측정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할머니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다.
- 2) 할머니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한다.

2. 용어의 정의

1) 할머니 양육자

학령전기 이하의 친손자녀 혹은 외손자녀를 자신의 집 또는 자녀의 집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양육하고 있는 친할머니 또는 외할머니를 의미한다

2)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

손자녀에게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나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 양육자를 대상으로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일반적으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노인은 18세 이하의 손자녀와 동거하고, 손자녀의 기본적인 의식주 욕구에 대해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가지며, 최소 6개월 이상 부모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친조모나 외조모 또는 친족관계의 여성노인으로 정의된다(Fuller-Thomson & Minkler, 2000).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서 학령전기 이하의 손자녀를 최소 6개월 이상 주간양육하고 있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를 연구 대상자 범주에 포함하였다. 손자녀의 연령을 학령전기 이하로 제한한 이유는 주간양육자들의 경우 손자녀의 평균 연령이 3.95세로 만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이 대부분이기(Seo, 1995) 때문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의 지인 9명의 도움을 받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대상자들에게 주로 설문지 작성을 의뢰하였으며 완성된 설문지를 우편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우표가 붙은 편지봉투를 첨부하였다. 우편 자료 수집시 대상자 탈락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노인이 연구의 윤리적 측면에서 취약한 그룹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의 자발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편 자료 수집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자발적인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두었다. 도구의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변수의 수에 4~5배 정도가 바람직하고 자료를 우편으로 수집할 경우 회수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최종적으로 126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회송률 63%) 분석에 활용되었다.

3. 연구도구 개발과정

연구도구의 개발과정은 1)손자녀 양육 스트레스 측정 항목의 선정 작업으로 1차 항목 선정과 이에 대한 내용 타당도 및 2차 항목 선정, 2차 항목에 대한 예비조사 실시, 최종 항목 선정 2)측정도구의 평가 순으로 진행하였다.

1)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 항목의 선정

(1) 1차 항목 선정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Abidin(1995)의 부모역할 스트레스 모델에 이론적 토대를 두었으며 6개 요인의 아동영역과 7개 요인의 양육자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양육자 영역에 Kwon(2000)의 연구와 Kim(2007)의 원자료에서 2차 분석한 결과 나타난 가족관계 측면과 Dowdell(2004)의 연구와 Kim(2007)의 원자료에서 2차 분석한 결과 나타난 재정적 측면, Pearlin et al.(1990)의 연구와 Kim(2007)의 원자료에서 2차 분석한 결과 나타난 가족 돌봄제공자들이 경험하는 역할포기의 측면을 추가하여 총 28개의 항목을 개발하였다<Table 1>.

(2) 내용 타당도 및 2차 항목 선정

본 연구는 Nunally(1978)가 제시한 대표성과 분별력을 내용 타당도의 기준으로 삼았다.

대표성 있는 항목 선정을 위해 8명의 전문가(간호학 교수 1인, 박사과정 대학원생 7인)와 함께 같은 의미를 가진 항목끼리 유목화 하였다. 손자녀 특성, 건강문제, 역할 포기, 가족 관계, 사회생활 제한, 재정문제, 유능감과 유대로 분류된 7개 유목 가운데 21, 26 항목으로 구성된 재정문제는 주간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어서 제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항목 22의 '나는 이 짐을 내려놓고 싶다'는 항목 1의 '나는 손주 보기를 그만두고 싶다'와 의미가 중복되어 삭제하였다.

분별력 있는 항목 기술을 위해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삶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묻는 항목은 현재완료 시제로, 그 외의 항목들은 현재 시제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무성의한 응답을 피하기 위해 몇 개의 항목은 부정형 진술문으로 기술하였다. 아울러 각 항목이 한 의미로만 해석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문항의 적절성과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8명의 전문가에게 각 항목의 적합성 여부를 4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각 항목의 평균 점수가 3점(어느 정도 그렇다) 이상일 때 그 항목을 선정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항목 2, 23, 25, 28이 평균 3점 미만으로 나타나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에 부적합한 항목으로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따라서 내용 타당도에서 검증된 항목은 총 21개 항목이었다.

(3) 예비조사(pilot test)

<Table 1> Initially developed Items

Item	Item Content
q2	Even the slightest noise or light wakes my grandchild
q3	My grandchild doesn't keep still when I bathe or dress him/her
q12	My grandchild is quite picky when eating
q13	My grandchild is not healthy
q25	My grandchild is peevish
q7	Since I starting caring for my grandchild, my stamina has become worse
q8	Since I starting caring for my grandchild, my health has become worse
q9	Since I starting caring for my grandchild, I have been in more pain
q17	Since I starting caring for my grandchild, I have become depressed
q23	Since I starting caring for my grandchild, I have become anxious
q1	I want to stop taking care of my grandchild
q5	I cannot tell my adult child that I will not take care of the grandchild anymore
q22	I want to put down this burden
q14	My husband spares me a lot of trouble
q15	I am not satisfied with the compensation(money) from my adult child
q16	I don't feel that I'm receiving thanks from my adult child for caring for the grandchild
q19	I don't have free time even when my adult child has a break or a holiday
q20	My adult child does not seem to parent the child with responsibility
q4	Since I starting caring for my grandchild, I rarely have leisure time
q6	Since I starting caring for my grandchild, I have not met with my friends
q10	Since I starting caring for my grandchild, I have not been able to attend to gatherings with relatives or neighbors
q11	Since I starting caring for my grandchild, I have few chances to develop myself
q18	I have no one to care for the grandchild when I am sick
q21	Since I starting caring for my grandchild, my income has diminished
q26	It is a financial burden to care for the grandchild
q24	Caring for my grandchild is more difficult than I expected
q27	My grandchild needs me more than anyone else
q28	My grandchild likes playing with me

13명의 할머니들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부정확하게 전달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는지, 설문지 완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인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항목 14의 '남편이 내 일을 도와준다'는 배우자가 없어서 질문에 답할 수 없는 경우들이 나타나 제거하였으며 그 외에 정확한 이해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항목은 없었다. 설문지 완성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5분 내외였다.

(4) 최종 항목 선정

문항수가 많으면 회수율이 낮아지고 진실된 자료를 얻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측정오차가 높아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Lee et al., 1991). 예비조사에서 설문지 완성에 소요된 시간은 5분 내외로 적절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총 20개의 항목을 선정하여 4점 척도로 개발하였다. 최종 항목은 건강 4개 항목, 가족관계 4개 항목, 손자녀의 특성 4개 항목, 사회적 측면 4개 항목, 역할포기 2개 항목, 유능감과 유대 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4. 자료분석 방법

Window SPSS program 12.0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도구의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alpha계수로 확인하였고 구성 타당도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 그 중에서도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배우자와 본인의 독자적인 수입이 있는 대상자는 71명(56.3%)이었고 없는 대상자는 55명(43.7%)이었다. 독자적인 수입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가운데 35명(49%)이 월 2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로운 대상자들이 표본에 많이 포함되었으며, 배우자의 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8명(61.9%) 이었다.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특성 가운데 현재 돌보고 있는 손자녀의 수는 1명이 76명(60.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손자

녀와의 관계는 외할머니인 경우가 73명(58%)으로 조금 더 많았다. 손자녀의 연령은 제일 어린 손자녀의 연령을 조사하였는데 영아기 47명(37.3%), 걸음마기 39명(31%), 학령전기 40명(31.7%)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자녀로부터 수고비를 받는 대상자는 83명(66%)이었고 그 가운데 51명(61%)은 월 50-100만원의 수고비를 받았다. 그리고 전혀 받지 않는 경우도 43명(34%)이었다.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 동기로는 자녀의 맞벌이가 116명(92.1%)으로 가장 많았다. 손자녀를 맡게 된 당시 양육의 자발성을 보면 ‘반갑지는 않지만 자녀를 돕기 위해서’가 56명(44.4%), ‘반갑지는 않지만 남의 손에 맡기기 싫어서’가 18명(14.3%)으로 나타나 환경이나 상황에 의한 강요로 시작하게 된 경우가 58.7%였다. 그리고 손자녀 양육을 시작했을 때의 건강 상태는 ‘좋았다’가 99명(78.6%), ‘매우 좋았다’가 4명(3.2%)으로 대부분 손자녀 양육 전에는 건강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15개 항목의 측정도구로 측정된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 점수는 총점 범위가 29-49점으로 나타났다.

2.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1) 도구의 요인분석

(1) 요인추출 및 회전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의 타당도 검증에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모형은 요인의 수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varimax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 결과 고유치(Eigen value) 1.0 이상에서 6개 요인으로 묶였으며 항목 7, 8, 17, 9는 요인 1에 묶였으며 항목 11, 4, 6, 18, 10은 요인 2에, 항목 16, 19, 15, 20은 요인 3에, 항목 12, 13, 24는 요인 4에, 항목 1, 5는 요인 5에, 항목 3, 27은 요인 6에 묶였다. 여기에서 요인 4에 묶인 항목 24는 함께 묶인 항목들과 공통된 특성이 없어서 제거하였다. 그리고 요인 6에 묶인 항목 3과 27도 공통적인 특성이 없으며 우연히 묶인 것으로 판단하여 제거하였다. 그 결과 남은 17개의 항목으로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유치(Eigen value)가 1.0 이상에서 5개 요인으로 묶였는데 항목 7, 8, 17, 9는 요인 1에 묶였으며 항목 11, 4, 6, 10은 요인 2에, 항목 16, 19, 20, 15는 요인 3에, 항목 1, 12, 13은 요인 4에, 항목 5, 18은 요인 5에 묶였다. 이 가운데 항목 1은 함께 묶인 다른 항목들과 공통적인 특성이 없어 제거하였고 항목 10은 요인 2와 요인 4에 기여하는 정도가 비슷하여 요인의 특성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고 제거하였다. 그 결과 남은 15개의 항목으로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5개 항목으로 3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 5개가 추출되었다(Table 3>). 항목 7, 8, 9, 17은 요인1에 묶였으며 항목 18, 5는 요인2에, 항목 16, 19, 15, 20은 요인3에, 항목 12, 13은 요인4에, 항목 6, 11, 4는 요인5에 묶였다. 5개 요인들의 설명 분산 백분율은 제 1요인 18.06%, 제 2요인 13.83%, 제 3요인 12.45%, 제 4요인 12.12%, 제 5요인 10.77%로서 5개 요인이 전체 변량의 67.23%를 설명하였다(Table 4>). 요인 적재량은 일반적으로 ± 3 이상(Kang, Serk, & Oh, 1993), 보수적인 기준에서는 0.4 이상을 유의하다고 보며 0.5 이상인 경우에는 매우 높은 유의성을 가진다(Lee, 1999)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항목 20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요인 적재량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항목들이 각 요인을 구성하는데 매우 높은 유의성을 가진다고 분석하였다.

(2) 요인 명명

요인을 명명할 때는 요인 부하치가 큰 것이 가장 그 요인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26)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
Age(years)	≤49	2(1.6)
	50~59	49(38.9)
	60~69	59(46.8)
	70~79	16(12.7)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48(38.1)
	Middle-High school	72(57.1)
	≥College	6(4.8)
Financial status (monthly income, 10,000won)	Dependent	55(43.7)
	<1	12(9.6)
	1~1.99	24(19)
Health status before caring grandchild	≥2	35(27.8)
	Very good	4(3.2)
Existence of husband	Good	99(78.6)
	Bad	23(18.3)
	Yes	78(61.9)
Religion	No	48(38.1)
	Christian	41(32.5)
	Buddhist	34(27)
	none	31(24.6)
	Catholic	18(14.3)
Number of grandchildren	Confucian	2(1.6)
	1	75(59.5)
	2	49(38.9)
Age of the last grandchild	3	2(1.6)
	0~2	47(37.3)
	2~4	39(31)
Relationship with grandchild	4~6	40(31.7)
	Grandchild from son	53(42.1)
Pecuniary reward (monthly, 10,000won)	Grandchild from daughter	73(57.9)
	None	43(34.1)
	10~50	20(15.9)
	50~100	51(40.4)
	>100	12(9.6)

<Table 3> Factor analysis(Final)

Item	Item content	Factor				
		F1	F2	F3	F4	F5
q7	Since I starting caring for my grandchild, my stamina has become worse	.90				
q8	Since I starting caring for my grandchild, my health has become worse	.90				
q9	Since I starting caring for my grandchild, I am in more pain	.51				
q17	Since I starting caring for my grandchild, I have become depressed	.51				
q18	I have no one to care for the grandchild when I am sick		.77			
q5	I cannot tell my adult child that I will not take care of the grandchild anymore		.61			
q16	I don't feel that I'm receiving thanks from my adult child for caring for the grandchild			.83		
q19	I don't have free time even when my adult child has a break or a holiday			.70		
q15	I am not satisfied with the compensation(money) from my adult child			.50		
q20	My adult child does not seem to parent the child with responsibility			.45		
q12	My grandchild is quite picky when eating				.84	
q13	My grandchild is not healthy				.74	
q6	Since I starting caring for my grandchild, I have not met with my friends					.76
q11	Since I starting caring for my grandchild, I have few chances to develop myself					.72
q4	Since I starting caring for my grandchild, I rarely have leisure time					.52

<Table 4> Eigen value, percent of the total variance explained, cumulative percent

Factor	Eigen value	Percent of the total variance explained	Cumulative percent
Health problems	2.71	18.06	18.06
Possibility of role substitution	2.07	13.83	31.89
Relations with adult children	1.87	12.45	44.34
Grandchild's characteristics	1.82	12.12	56.46
Restriction of social life	1.62	10.77	67.23

을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각 요인마다 가장 크게 부하된 항목을 참고하였다(Waltz & Bausell, 1981). 아울러 관련 문헌들을 참고하면서 여성건강간호학 교수 1인과의 토의 과정을 통해 요인의 명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각 요인별로 부하가 큰 항목은 제 1요인에서는 '손주를 봐주기 전보다 기력이 나빠졌다'로 나타나서 '건강문제'라고 명명하였다. 제 2요인에서는 '내가 아플 때 내 대신 손주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로 나타나서 '역할의 대체 가능성'으로 명명하였다. 제 3요인은 '자녀들이 손주를 봐줘서 고맙다는 표현을 안 한다'로 나타나서 '자녀와의 관계'로, 제 4요인은 '손주는 내가 주는 대로 안 먹는다'로 '손자녀 특성'으로, 제 5요인은 '손주를 봐주기 전보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로 '사회생활 제한'으로 명명하였다<Table 4>.

(3) 요인의 독립성

요인은 상호 독립적이어야만 요인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서로 상관관계가 높다면 2개의 요인이라기보다는 1개의 요인으로 간주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경우 요인들 사이에 상호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직각회전방식의 하나인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인 6개의 요인들은 완전한 상호독립 관계로 나타났다<Table 5>.

2) 도구의 신뢰도

요인분석으로 선택된 15개의 항목들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Cronbach's alpha 계수는 0.75였다. 12, 13항목을 제거하여 전체 신뢰도를 개선할 수 있지만 이들의 평균과 분산이 고르게 나타나고 모두 제 4요인에 속한 항목들로 제거하면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의 총 설명 변량이 감소되므로 제거하지 않기로 하였다<Table 6>. 또한 각 요인별 내적 일관성(Cronbach's alpha)이 .73, .45, .64, .61, .70으로 나타나 제 2요인을 제외한 4개의 요인이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기준인 .60을

<Table 5> Correlation between 5 factors

Factor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Health problems	1.00				
Possibility of role substitution	.00	1.00			
Relations with adult children	.00	.00	1.00		
Grandchild's characteristics	.00	.00	.00	1.00	
Restriction of social life	.00	.00	.00	.00	1.00

<Table 6> Reliability analysis of the final items

Item	Item content	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	Cronbach's alpha coefficient
Factor1: Health Problems			
q7	Since I starting caring for my grandchild, my stamina has become worse	.46	.73
q8	Since I starting caring for my grandchild, my health has become worse	.39	
q9	Since I starting caring for my grandchild, I am in more pain	.40	
q17	Since I starting caring for my grandchild, I have become depressed	.51	
Factor2: Possibility of role substitution			
q18	I have no one to care for the grandchild when I am sick	.30	.45
q5	I cannot tell my adult child that I will not take care of the grandchild anymore	.41	
Factor3: Relations with adult children			
q16	I don't feel that I'm receiving thanks from my adult child for caring for the grandchild	.39	.64
q19	I don't have free time even when my adult child has a break or a holiday	.47	
q15	I am not satisfied with the compensation(money) from my adult child	.44	
q20	My adult child does not seem to parent the child with responsibility	.44	
Factor4: Grandchild's Characteristics			
q12	My grandchild is quite picky when eating	.13	.61
q13	My grandchild is not healthy	.01	
Factor5: Restriction of social life			
q6	Since I starting caring for my grandchild, I have not met with my friends	.26	.70
q11	Since I starting caring for my grandchild, I have few chances to develop myself	.20	
q4	Since I starting caring for my grandchild, I rarely have leisure time	.48	

넘었다. 이는 각 요인을 하나의 하부척도로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논 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Abidin(1995)의 부모역할 스트레스 모델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으며 6개 요인의 아동 영역과 7개 요인의 양육자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할머니 세대의 사회·문화적, 연령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양육자 영역에 Kim(2007)과 Kwon(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가족관계 측면과 Dowdell(2004)과 Kim(2007)의 연구에 나타난 재정적 측면, Kim(2007)과 Pearlin, Mullan, Semple과 Skaff(1990)의 연구에 나타난 가족 돌봄제공자들이 경험하는 역할포기의 측면을 추가하여 총 28개의 항목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기존의 표준화된 PSI와 비교해 보면 PSI는 아동 영역에서 과다활동성, 부모강화, 감정, 수용성, 적응성, 요구성의 6개 요인을 가지고 있지만 본 도구는 아동의 특성이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손자녀의 일반적인 건강 상태와 음식을 주는 대로 잘 먹는지의 여부만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구성하였다. 이는 학령전기 이하의 아동을 돌볼 때 주로 신체적인 요구의 해결이 주가 되기 때문일 수 있으며, 그 밖에 할머니가 손자녀의 특성을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PSI의 어머니 특성에는 유능성, 애착, 억압성, 우울감, 배우자 관계, 사회적 고립, 건강의 7개 요인이 있는데 이를 본 도구와 비교해보면 우울감은 건강문제에 함께 묶였고 배우자 관계를 대신해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으며 사회적 고립, 건강은 각각 본 연구에서 사회생활 제한, 건강문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역할의 대체 가능성은 PSI의 억압성과 일견 유사한 의미 같지만 장, 단기적으로 손자녀 양육 역할을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한편 PSI에서의 유능성과 애착은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전의 자녀 양육 경험을 통해 축적한 양육지식과 경험으로 돌보기 자신감이나 애착형성에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서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가 문헌고찰에서 제시한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의 다영역적 특성이 반영되었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5개 요인이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의 어떠한 속성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재분석함으로써 논의하고자 한다.

건강 문제 요인은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드러났다. 건강 문제 요인에 포함된 내용은 신체 건강 면에서는 기력 저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낮은 평가, 통증의 증가였고 정신건강 면에서는 우울의 증가였다. 이 가운데 기력의 저하는 본 연구에서만 확인된 건강 관련 항목으로 다른 외국의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항목이었다. 이는 한

국 전통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할머니를 대상으로 건강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도를 높이는 전략임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본다.

역할의 대체 가능성 요인은 개인적이나 국가적인 육아자원의 제한으로 손자녀 양육 역할의 지속과 포기에 대한 결정이 자유롭지 못한 정도를 의미한다. 손자녀를 주간양육하는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은 전담양육자처럼 자녀의 이혼, 별거, 사망 등의 피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맞벌이하는 성인자녀에 대한 끝없는 책임과 희생, 타인양육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 같은 소극적인 강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손자녀 돌보기 동기가 본인의 의사인 경우에 부담감 정도가 낮으므로(Kwon, 2000)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할머니 준비교실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손자녀 양육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손자녀 양육의 지속 동기가 자발적인 것이 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손자녀 양육 역할로부터 휴식간호(respite care)를 제공하여 단기적인 대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인 대체를 돕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자기주장을 할 수 있도록 자기주장 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보육시설의 확충과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하지만 5개 요인들 가운데 역할의 대체 가능성 요인만 독자적인 척도를 구성하기에 부족한 낮은 신뢰도를 보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항목을 더 개발하여 독자적인 척도로 정련할 필요가 있다.

자녀와의 관계 영역은 손자녀 양육을 계기로 수정확대가족을 구성하여 할머니와 자녀세대가 잦은 교류를 하게 되면서 부담과 보상 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때 느끼게 되는 정서적인 고통을 의미한다. 이는 조손 가족의 전담양육자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주간양육자의 독특한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국내와 외국에서 전담양육자의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연구한 문헌들에서도 자녀와의 갈등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속성은 전혀 다르다. 즉 외국의 경우에도 자녀와 관련된 문제는 할머니의 주요한 스트레스원으로 그 내용은 손자녀의 생물학적 부모인 성인자녀의 비적응적 또는 범죄행동, 건강, 손자녀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 등에 대한 분노, 증오, 죄책감, 실망감 등이다(Morrow-Kondos, 1993; Weber & Waldrop, 2000). 하지만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에서는 자녀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 않다. 자녀와의 관계 영역은 동서양의 문화를 초월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의 주요한 양육 스트레스원이기 때문에 이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녀와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자녀와의 관계 영역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달리 구성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진다. 예컨대 서양의 경우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는 자녀의 범죄, 사회 부적응적 행동, 약물중독 등과 관련된 건강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녀들의 고마움을 모르거나, 자녀들의 휴일에도 잘 쉬지 못하거나, 수고비가 충분하지 않거나, 자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역할을 하지 않을 때이다.

손자녀 요인은 개발 당시 4항목을 포함했는데 연구결과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받은 항목은 ‘손주는 내가 주는 대로 안 먹는다’와 ‘손주의 건강상태는 나쁘다’는 항목이었다. Abidin(1995)의 PSI와 다르게 아동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의 적재치가 비교적 낮은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가 일반 아동을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Abidin(1995)의 대상자처럼 병원에 입원하거나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을 양육하는 것과는 달리 양육하기 까다로운 아동의 특성을 덜 경험해서 그런 것일 수 있다. 둘째, 어머니들은 아동을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성인으로 키우겠다는 양육의 책임과 의무감을 많이 가지는데 반해 할머니는 그로부터 얼마간 벗어나 무조건적인 애정을 가지고 돌보기 때문에(Kim, 2007) 아동의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불편감을 덜 느끼고 따라서 손자녀 특성과 관련된 양육 스트레스를 덜 느낀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 대상자들이 전담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손자녀 훈육이나 학습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덜 느끼며 손자녀 요인 가운데 선택된 항목에서 보듯이 잘 먹이고 건강하게 보살피는 것을 양육의 핵심 내용으로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

사회생활 제한 요인은 많은 문헌들에서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주요한 스트레스원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여가활동이나 친구들과의 교류 감소(Jendrek, 1993), 교육의 중단과 파트너, 친구, 노부모와 보내는 시간의 감소(Haglund, 2000) 등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생활 제한을 구성하는 항목은 친구들과의 교류, 자기 계발 기회(배우거나 봉사하거나 일하는), 여가생활의 감소이다. Abidin(1995)의 PSI 가운데 이와 유사한 요인은 ‘사회적 고립감’이며 그 내용은 주로 개인적인 시간에 대한 갈망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의 ‘사회생활 제한’ 요인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어린 아동을 양육할 때는 항상 관심과 주의 집중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때는 가능한 짧은 시간에 필요한 내용을 얻을 수 있는 효율성이 높은 도구가 적절하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건강, 역할의 대체 가능성, 자녀와의 관계, 손자녀 특성, 사회생활 제한의 5개 영역,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자가보고나 전화면담을 통해 5분 이내에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는 통계적 절차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나 신뢰도는 다소 낮았다. 반복연구를 통해 부족한 신뢰도를 개선한다면 우리나라 할머니가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도

구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명하지 못한 나머지 요인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도구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제한적인 표본수로 인해 도구의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 우편을 통한 설문지 회송률이 63%였고, 탈락자들은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반복 연구시에는 이를 참고하여 우편 자료 수집 방법보다는 면대면 자료 수집 방법을 권하고 싶다. 그리고 후속연구에서는 조손 가족의 전담양육자가 경험하는 고유한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 내용을 탐색해서 이를 본 도구와 합성한다면 보다 일반적인 한국형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 도구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국의 할머니 가운데 주간 양육자를 대상으로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문헌고찰, 이차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여 20개의 항목을 구성하여 개발된 도구를 총 126명의 할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용 SPSS program(version 12.0)을 이용하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3차례에 걸친 요인분석을 통하여 5항목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5개 요인(건강, 역할의 대체 가능성, 자녀와의 관계, 손자녀 특성, 사회생활 제한), 15개 항목이 선정되었다. 총 설명변량은 67.23%였으며 요인별 설명 분산은 제 1요인 18.06%, 제 2요인 13.83%, 제 3요인 12.45%, 제 4요인 12.12%, 제 5요인 10.77%였다.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75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재검증하기 위하여 충분한 표본수의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조손 가족의 전담양육 할머니를 대상으로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 내용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도구를 활용하여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할머니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손자녀를 전담양육 혹은 주간양육하는 할아버지의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 내용을 탐색하기 위한 질적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Abidin, R. R. (1995). *Parentingstress index (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Burton, L. M. (1992). Black grandparents rearing children of drug-addicted parents: stressors, outcomes and social service needs. *Gerontologist, 32*(6), 744-751.

Caliandro, G., & Hughes, C. (1998). The Experience of being a grandmother who is the primary caregiver for her HIV-positive grandchild. *Nurs Res, 47*(2), 107-113.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 61*, 1628-1637.

Dowdell, E. B. (2004). Grandmother caregiver and caregiver burden. *MCN Am J Matern Child Nurs, 29*(5), 299-304.

Fuller-Thomson, E., & Minkler, M. (2000). African america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Health Soc Work, 25*(2), 109-118.

Goldberg, S., Morris, P., Simmons, R., Fowler, R., & Levinso, H. (1980). Chronic illness in infancy and parenting stress: a comparison of three groups of parents. *J Pediatr Psychol, 15*, 347-358.

Haglund, K. (2000). Parenting a second time around: and ethnography of African-American grandmothers parenting grandchildren due to parental cocaine abuse. *J Fam Nurs, 6*, 120-135.

Jendrek, M. P. (1993).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Circumstances and decision. *Gerontologist, 34*, 206-216.

Kang, B. S., Serk, K. S., & Oh, Y. J. (1993). *SPSS/PC + for statistical analysis*. Seoul: Trade Management Press

Kelly, S. J., & Damato, E. G. (1995). Grandparents as primary caregivers. *MCN Am J Matern Child Nurs, 20*, 326-332.

Kim, K. H., & Kang, H. K. (1997).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5), 141-150.

Kim, M. J. (2007). A study of the caregiving burden on grandmothers who raise their grandchildren: A phenomenological research. *J Korean Acad Nurs, 37*(6), 914-923.

Kwon, I. S.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rden and the social support of grandmothers caring their grandchildren. *Korean J Child Health Nurs, 6*(2), 212-223.

Lee, E. O., Im, N. Y., & Park, H. A. (1998). *Nursing Medical Research and Statistical analysis*. Seoul: Soomoonsa.

Lee, S. M. (1999). *Factor analysis I*. Seoul: Hakjisa.

Minkler, J. S. (1995). Physical child abuse assessment: perpetrator evaluation. In J. C. Compbell(ed.). *Assessing dangerousness: Violence by sexual offenders, batterers, and child abuser*. Newbury Park, CA: Sage.

Minkler, M., & Fuller-Thomson, E. (1999). The health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Results of a national study. *Am J Public Health, 89*(9), 1384-1389.

Morrow-Kondos, D. (1993).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Oklahoma State University, Stillwater.

Nam, M. S. (1999). *A study on the life and support for grandparent in charge of grandchild parent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Pearlin, L., Mullan, J. T., Semple, S. J., & Skaff, M. M. (1990). Caregiving and the stress process: an overview of concepts and their measures. *Gerontologist, 30*(5), 583-594.
- Pyo, K. S. (2005). The present state and development issues of child care services in Korea.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0*, 139-163.
- Seltzer, M. (1976). *Suggestions for the examination time-disordered relationships. Time, roles, and self in old age*. New York: Human Sciences Press.
- Seo, B. S. (1995). A study on the surrogate parenting and satisfaction of grand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Shin, S. J. (1997). Effects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effica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 *Korean J Child Studies, 19*(1), 27-42.
- Waldrop, D. P., & Weber, J. A. (2001). From grandparent to caregiver: the stress and satisfaction of raising grandchildren. *Fam Soc, 82*, 461-472.
- Waltz, C. F., & Bausell, R. B. (1981). *Nursing research - design, statistics and computer analysis*. Philadelphia: F. A. Davis company.
- Weber, J. A., & Waldrop, D. P. (2000).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families in transition. *J Gerontol Soc Work, 33*, 27-46.
- Yoo, A. J. (1999). *Traditional child rearing method in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